본 문서는 기억수사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지침입니다.

메모리 컴퍼니는 '기억'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며,

이를 활용한 수사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침을 어길 시, 기억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 지침서를 반드시 숙지 후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각 수사일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의 자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지시 없이 개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Day3 자료는 사건 전개의 핵심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 후반 업무지침서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전 열람 시 수사 흐름과 주요 결정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지시가 있기 전까지 Day3 자료와 후반 업무지침서는 절대 열람하지 마세요.**

**기본 규칙**

메모리컴퍼니의 수사는 ‘기억필름’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사항은 수사팀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1. 수사는 기억로딩실로 공간을 구현한 지도(Map of Village)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지도 위에는, **장소와 일치하는 ‘기억필름 - 장소단서’를 정확히 배치**해야 합니다.

1. 수사일마다 기억필름 현상판에 올릴 수 있는 수사토큰은 **최대 18개**로 제한됩니다.

**18개를 모두 사용한 경우, 해당 날짜의 수사는 종료되며 추가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1. 조사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미리 열람하지 마십시오.**

필요 시, 메모리컴퍼니 타부서의 협조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카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열람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는 열람을 삼가주세요.

1. 신문 등 공개된 문서는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나,

봉해진 편지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지시가 있기 전까지 열람을 금합니다.**

**Day 1, Day 2 구성품 리스트**

수사에 필요한 구성품이 누락되면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아래의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지침서, 지도(Map of Village), 수사 토큰, 기억 필름 현상판 1개, 사원증, 용의자 카드 4장, 피해자의 기억조각 4장, 장소 카드 24장, 편지 2장, 협조카드 6장, 신문 2부, 목격자 증언카드 6장, 기억 수사팀 NOTE

※ 다음 구성품은 그 내용을 **(앞면, 뒷면, 내용)**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지침서 (지금 보고 계신 책자) 1부
* 지도(Map of Village) 1개
* 수사토큰 18개
* 기억 필름 현상 판 1개
* 신문 2부
* 사원증 1개
* 용의자카드 4장
* 편지 2장

※ 다음 카드는 **앞면을 볼 수 있습니다. 뒷면은 볼 수 없습니다..**

**● 피해자의 기억조각 4장**

**● 장소 카드 24장**

**● 협조카드 6장**

**● 목격자 증언카드 6장**

**● 기억 수사팀 NOTE**

**📋 게임 준비**

1. 스포일러 방지 카드는 수사 도중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구성품 중에는 용의자들의 잠재기억을 바탕으로 스캔 앤 레코드 기술로 구현한 지도**(Map of Villag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Map of Village)**는 테이블 중앙에 펼쳐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캐릭터의 위치나 동선을 추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 모두 보기 불편하지 않은 위치에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기억 필름 현상판은 **지도(Map of Village) 근처, 수사팀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주세요. 수사 토큰은 이 현상판 위에 올려 사용하므로, **공동으로 확인하고 접근하기 쉬운 자리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억필름 - 장소 단서’는 지도(Map of Village) 위 해당 장소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배치해주세요.** 배치할 때는 **카드의 앞면이 보이도록** 놓고, **뒷면은 절대 확인하지 마세요.**
3. Day 2의 수사가 모두 끝나면, **기억수사팀 NOTE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복원 요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게임의 진행 순서**

게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Day 1, 수사의 시작
* Day 2, 유력 용의자 확정
* 복원 요청서 작성
* Day 3, 그림자가 걷힌 후
* 최종 추리

**🔍 Day 1**

**1️⃣ 신문 확인하기**

**오늘 아침 발행된 신문**을 통해, 금일 수사 대상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도에 카드 배치하기**

용의자들의 잠재기억을 바탕으로 스캔 앤 레코드 기술로 구현한 지도(Map of Village)를 테이블 중앙에 펼쳐주세요.

지도를 펼쳐두었다면, **지도**(Map of Village) **위 비어 있는 장소(장소 디자인 필요) 칸에는 해당하는 ‘기억필름 - 장소 단서’ 카드 더미**를 올려두면 됩니다.

또한, **기억 필름 현상판**도 수사팀 전원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함께 배치해주세요.

**3️⃣ 용의자 카드 확인하기**

수사의 첫 단계는 용의자 파악입니다.

피해자의 기억필름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용의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4️⃣ 수사 토큰 나눠 받기**

모든 수사팀은 수사 토큰을 최대한 균등하게 나눠 갖습니다.

수사팀 인원에 따라 나누는 개수가 다릅니다.

단, **정확히 균등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더 받도록** 합니다.

**1인일 경우**, 모든 수사 토큰(18개)을 혼자 사용합니다.

**2인일 경우**, 각자 9개씩 분배합니다.

**3인일 경우**, 각자 6개씩 분배합니다.

**4인일 경우**, 1인당 4개씩 나눈 후 남은 2개의 토큰은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1개씩 더 받습니다

**5인일 경우**, 1인당 3개씩 나눈 후 남은 3개의 토큰은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1개씩 더 받습니다

**6인일 경우**, 각자 3개씩 분배합니다.

**5️⃣ 수사토큰 사용하기**

**수사토큰은 하루에 총 18개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필름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정해진 할당량 내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세요.

**수사토큰 사용 범위**

1. 수사 토큰은 피해자의 기억 조각, ‘기억 필름 - 장소 단서’, 협조 카드, 목격자 증언 카드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2. 메모리컴퍼니 협조 카드를 열람할 때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 토큰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단, 신문, 편지, 용의자 카드, 기억수사팀 NOTE, 기억필름 현상판, 엔딩북처럼 **이미 공개된 단서를 확인할 때는 수사 토큰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기억필름을 확인할 때마다, 사용한 수사토큰을 **차례대로 수사토큰 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사토큰 판이 모두 채워졌다면, 그날의 수사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수사일로 넘어가야 합니다.**

**6️⃣ 메모리컴퍼니 타 부서에게 협조 받기**

수사 도중,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메모리컴퍼니 직원의 협조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콘이 있는 기억필름 2장을 모으면, 수사토큰을 사용해 협조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 첨부)

단, 메모리컴퍼니 직원들 역시 각자의 업무로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므로,

확실한 의심 단서가 수집되기 전까지는 협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절대 임의로 협조 카드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 카드 확인 시 유의사항**

* 획득한 기억필름은 **자유롭게 다시 열람할 수 있으며** **다른 팀원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기억필름의 뒷면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사토큰 사용 전에는 절대 뒷면을 미리 보지 마세요.**
*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중요한 단서를 메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게임 진행 중에는 기억 수사팀 NOTE에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 지도 위에 카드 더미를 놓을 때, ‘**기억필름-장소 단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배치**합니다. 또한, 토큰을 소모하여 확인할 때도 원하는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Day 2 수사를 시작할 때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Day 1 상자에 들어 있는 신문을 읽은 후, 첫째 날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 Day 2**

Day1에 할당된 모든 기억필름을 조사했다면, 수사는 자동으로 Day 2로 이어집니다.

**📌 목격자 증언 카드 공개**

목격자 증언 카드는 새로운 장소나 사건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당 카드를 지도의 올바른 위치에, ‘기억필름 - 장소 단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해주세요.

**📌 수사 토큰 배분**

Day 1에서 사용한 **수사 토큰 판을 모두 비운 뒤, 새로운 수사를 시작**합니다.

Day 2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최대 18개의 기억 필름을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단, Day 2에서는 **수사 토큰을 모두 사용한 시점에 용의자의 기억 복원을 위한 ‘복원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억 필름을 모두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기억수사팀 NOTE 마지막 장을 펼쳐 복원 요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요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Day 3 수사로 이어집니다.**

Day 2는 전반적으로 Day 1과 같은 룰로 진행되며,

지금부터 함께 **편지와 신문을 읽고 둘째 날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기억수사팀 슬로건: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진실이 됩니다.

**지침서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당신은 진정한 메모리컴퍼니 기억수사팀의 일원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이 업무지침서는 단순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불완전한 실마리를 통해 진실을 찾아야 하며, 그 여정에는 명확한 절차와 신중한 판단, 그리고 동료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게 될 장면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누군가의 기억이고 누군가의 진실입니다.

기억이 지워진 그들의 이야기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팀입니다.

혼선 없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아래의 서약을 통해 당신의 준비가 끝났음을 알려주세요.

**[기억수사팀 서약문]**

나는 본 업무지침서의 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수사 중에는 모든 절차와 규칙을 성실히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기억을 다루는 이 임무의 무게를 인지하고, 각 단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며,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협업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서약은 단순한 승인 절차가 아니라,

**기억 기반 수사 과정에 책임을 지고 임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입니다.**

Team. 기억수사팀

우리는 ‘기억’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컴퍼니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정교하게 기록하고, 왜곡 없이 되살리는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독자적인 **스캔 앤 레코드** 기술을 개발하여 기억을 스캔하고, 이를 **가상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잊혀지거나 손상된 기억조차 복원하고,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컴퍼니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기억의 저장이 아닌, **기억을 더욱 특별하고, 더 오래도록 의미 있게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모리 컴퍼니 기억수사팀에 정식 수사 요청이 들어왔다.

기억이 상당히 많이 훼손된 신원미상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군.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아침 신문을 확인해 보면 자네도 알게 될걸세.

아무튼, 자네의 업무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거야.

피해자의 기억필름은 분실기억보관팀에서 발견했다네. 호수에서 떠오른 가방과 일치하는 기억이 담겨 있었지만, 오래된 필름이라 왜곡과 누락이 많아 신원을 특정하긴 어렵더군.

그래도 사건 당일의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남아있어 조사해 본 결과, 용의자 4명이 모두 사건 당일에 기억을 삭제한 기록이 있었어. 그래서 용의자들의 잠재기억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

기억 로딩실에서 용의자들의 기억을 토대로 주요 공간들을 구현해냈다네. 그게 이 사건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걸세.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이네. 3일 안에 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내길 바라네.

아 참,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기억’을 다루는 회사 아닌가.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기억을 단서 삼아 수사를 이어가는 우리 수사팀은 특히나 유의할 점이 많지.

그러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동봉된 **업무 지침서**를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게.

추신. 자네가 신입이라 혼자 조사하는 것에 걱정될 걸 잘 알고 있어.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도와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 **Dusty Lake**에서 백골화된 아동 시신 발견

### 낚시 중 발견된 가방… 수면 아래 감춰진 충격적 흔적

최근 Dusty Lake에서 낚시를 하던 한 시민이 오래된 어린이용 가방을 건져 올리면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흔적이 드러났다.

가방 안에는 필름통과 라벨이 지워진 약통이 들어 있었으며, 이상함을 느낀 시민은 곧바로 MPD(Memory Police Department)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MPD는 현장에 출동해 가방을 확인한 결과, 단순 유실물이 아닌 의도적으로 유기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 수역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

수색은 곧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한다.

호수 바닥 깊은 진흙층에서 백골화된 아동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해당 사체의 기억 필름은 기록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되어, 기억 전산국의 분실 기억 보관소로 분류되어 있었다.

MPD는 “사체가 장기간 수중에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정확한 사망 시각은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유골 상태로 미루어볼 때, 사망한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체를 감식한 법의학자 Dr. Malcolm Hayes는 “정확한 판단은 부검 이후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외형 소견으로는 만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여아로 보인다”고 밝혔다.

MPD는 유기 정황, 시신 상태, 기억필름의 기록 중단 여부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메모리컴퍼니 기억 수사팀에 정식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억 필름 절단 사건을 기억 기반 수사로 해결하며 주목받았던 메모리컴퍼니 기억수사팀.

이번 사건 역시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수사팀의 필수 덕목

1. 수사팀이라면, 반드시 NOTE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둔다.
2. 수사팀이라면, 모든 단서에 의심을 품되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는다.
3. 수사 중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동료는 보고 있다.
4. 수사팀이라면, 언제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5. 기억수사팀 NOTE의 마지막 장에는, 수사팀이 자주 사용하는 공문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복원 요청서**

**수신:** 기억복원팀

**발신:** 기억수사팀 수사관 [　　　　　　]

**일자:** [　　　　　　]

**제목:** 백골 사체 사건 관련 기억 복원 요청의 건

**1. 사건 개요**

최근 호수에서 백골 상태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본 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 요청 배경**

현재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전원의 기억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기억 복원 과정에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복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복원 요청 대상자**

* 성명: [ 　]
* 요청 사유: 해당 인물은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 당시 주요 용의자로,

범행 동기는 [　　　　　　　　　　　　]으로 판단됩니다.

* 동선 분석 결과, 실제 범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피해자 관련 사항**

* 사망 원인: [ 　] (으로 추정)
* 시신 유기 경위: 이후 [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것으로 보임

**5. 요청 사항**

* 상기 대상자의 삭제된 기억에 대한 복원 요청
* 복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빠른 회신 요청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본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

어느새 둘째 날 아침이 밝았군. 자네가 발로 뛰는 동안,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았네.

조사 끝에 몇몇 목격자를 확인했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 기억을 구현해냈지.

기억 필름 형태로 정리해두었으니, 수사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걸세.

그리고 오늘 수사가 마무리되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골라** 기억복원팀에 복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네.

삭제된 기억을 복구하는 건, 일반적인 기억 복원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거 알고 있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의자를 특정한 뒤에야 복원 요청을 맡기는 편이 좋네.

다른 부서도 각자 업무로 바쁘다 보니, 협조를 받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

그러니 **오늘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하네.**

* 수사팀장
* **Q. 기억삭제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셀레나)\*\*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께서 기억삭제팀에서 일하셨는데, 그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도 입사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억삭제팀은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일을 하잖아요. 어쩌면 인생에서 아주 작은 한 조각일지도 모를 그 기억 하나를 지우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이 훨씬 나아지는 걸 직접 보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참 뿌듯함을 느껴요.
* **Q. 그렉씨, 청소부에서 분실기억보관팀으로 승진하셨다면서요~? 승진 비결 좀 알려주세요~**
* A. (그렉) 어… 아마두… 제 생각에는요… 제가… 말은 느리지만… 어…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을… 같이 청소부…로 일하던… 동료가 좋게… 봐준 것 같아요… 분실 기억… 보관팀은… 기억전산… 국에서… 필름 릴이… 더이상… 감기지 않는… 필름들이… 이관되는… 어… 곳이잖아요… 음… 그런… 숨겨진 기억을… 다시 찾아드릴 수 있을 때… 아… 이 부서가… 저랑 잘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도… 그걸 알아봐 준… 거… 아닐까요…?
* **Q. 고객만족팀은 워낙 일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 힘든 걸 감수하고 다닐 만큼 데이브 씨가 메모리컴퍼니에서 가장 좋아하는 복지는 무엇인가요?**
* A. (데이브) 고객만족팀, 정말 힘들죠. 그래도 고객님들이 직원들 칭찬을 정말 많이 남겨주세요. 그걸 보면, 힘든 것도 조금은 사라진달까요. 저희가 고객님들의 CS를 처리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항상 불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당근과 채찍이 오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전 꽤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요.
* 복지요? 음… 밥이 맛있어요.
* **Q. 네?**
* **10년 만의 개기일식… 기상청 “안전 주의 당부”**
* 오는 2월 26일,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개기일식이 관측될 예정이다.
* 기상청은 “개기일식 전후로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초승달 모양의 해가 보일 수 있으며,
* 일식이 절정에 이르면 주위가 마치 밤처럼 어두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처럼 일시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질 수 있는 만큼,
* 보행자나 운전자는 이동 시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편, 지난 2009년 개기일식 당시에는 일식이 끝난 직후 전국 곳곳에 갑작스런 비가 내리기도 해,
* 이번에도 유사한 기상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기일식은 맨눈으로 관측할 경우**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필름통을 활용하면 간단하고 안전하게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필름은 빛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짙은 색의 네거티브 필름이어야 하며, 얇거나 투명한 필름은 오히려 눈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억을 나누다” 메모리카니발, 성황리에 개최

메모리컴퍼니 초대 회장 마크 데이비스(Mark Davis)의 고향에서 해마다 열리는 ‘메모리카니발’이 올해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메모리카니발은 기억 기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메모리컴퍼니의 역사와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매년 이 축제를 찾는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행사장은 활기를 띠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까지 몰려들어 명실상부한 ‘기억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축제 관계자는 “기억을 주제로 하지만 결코 무겁지 않고, 모두가 웃으며 돌아가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억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Day 3 구성품은 본 업무지침서를 모두 읽기 전까지 열람하지 마세요.**

**확인 순서는 업무지침서 → 기억복원처리결과서 → 신문입니다.**

**🔁 업무지침서 - Day 3 게임설명서**

수사에 필요한 구성품이 누락되면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아래의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Day 3 구성품 리스트**

■ 후반지침서, 기억 복원 처리 결과서, 수사 수첩, 신문 1부, 지도 1개, 셀레나의 기억 24장, 브라운 백, 수사수첩, 에필로그 2부

※ 다음 구성품은 그 내용을 **(앞면, 뒷면, 내용)**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후반지침서 (지금 보고 계신 책자) 1부
* 지도 1개
* 기억 복원 처리 결과서
* 신문 1부

※ 다음 카드는 앞면**을 볼 수 있습니다. 뒷면은 볼 수 없습니다..**

**● 셀레나의 기억 24장**

브라운백, 수사 수첩, 에필로그 2부는 수사 진행 중 특정 시점에 열람하게 됩니다.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개봉하거나 열어보지 마십시오.**

예정보다 먼저 확인할 경우, 기억 흐름에 혼선이 생기고 수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Day 3**

Day 2에 할당된 모든 기억 필름을 조사하고 협조 요청서 작성을 마쳤다면, 수사는 자동으로 Day 3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기억 복원 처리 결과서는,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한 내용만 열람해 주세요.**

**📌 지도 확장**

새로 제공된 지도는 Day 1, Day 2에서 사용한 지도와 **겹쳐지는 부분 위에 정확히 맞춰** 놓아 주세요.

이렇게 지도를 확장하면, **기억의 흐름과 공간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확장한 후에는, 추가된 영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열린 단서들을 확인해 주세요.

수사팀 전원이 지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과 마찬가지로 테이블 중앙에 펼쳐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수사 토큰 배분**

Day 2에서 사용한 **수사 토큰 판을 모두 비운 뒤, 새로운 수사를 시작**합니다.

Day 3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최대 18개의 기억 필름을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Day 3 역시 전반적인 진행 방식은 Day 1, 2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며 단서를 획득하는 방식이 추가**됩니다.

관련 안내는 게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니,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사토큰을 사용해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이제 수사팀 전원이 문서와 신문을 함께 읽고, **마지막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 엔딩 진행 방법**

Day3 수사토큰을 전부 소진한 뒤에는 기억수사팀 NOTE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수사팀 NOTE를 모두 채우셨다면, 하단의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당신이 복원한 기억의 조각들 속에, 사건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님.

보내주신 공문 잘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큰 만큼 저희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용의자를 명확히 특정해주신 덕분에 한 사람의 기억 복원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출해주신 증거 역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해당 인물을 용의자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기억복원팀도 사건 해결을 돕기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고,

마침내 **기억 필름 복원에 성공**하였습니다.

스칼렛 - 4p

앨런 - 6p

노아 - 8p

무디 - 10p

※ 복원요청서에 작성했던 용의자의 결과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님께,

저희가 용의자 스칼렛 룩 씨의 기억을 복원한 결과, 그녀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복원 과정 중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일자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각에 스칼렛 룩 씨는 명백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사망 당시, 스칼렛 룩 씨는 회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어떤 사건을 조사 중이었으며, 이에 따라 당일 13시 30분경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가 관련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마을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생각을 정리한 후 회사로 복귀하였고,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스칼렛 룩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 재삭제를 권유드렸으나,

스칼렛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자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며, 괜찮다는 말만 남긴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따라, 스칼렛 룩 씨를 제외한 방향으로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1p로 돌아가, 재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기억복원팀 Claire 드림

기억 삭제 동의서

1. **동의자 정보**

성명: 스칼렛 룩 (Scarlett Rook)

1. **삭제 요청 내용**

삭제 요청 기억의 범위 및 대상: 7월 22일의 기억

1. **유의사항 및 확인**

* 본인은 기억 삭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지 혼란, 공백, 감정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삭제된 기억의 공백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덮어쓰기 처리되며, 추후 현실 적응을 위한 상담이 제공됩니다.
* 기억 삭제는 자발적인 선택이며, 외부의 강요나 압박 없이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였습니다.

**4. 서명**

본인은 상기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며,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기억 삭제를 공식 요청합니다.

서명: **Scarlett Rook (싸인 들어가야함)**

날짜: 2009년 7월 22일

6p

수사관님께,

저희가 용의자 앨런 닙스 씨의 기억을 복원한 결과, 그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사망 일자와 시간대가 명확히 밝혀졌고,

해당 시각, 앨런 닙스 씨는 분명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던 시각,

앨런 닙스 씨는 마을광장 인근의 ‘윌로우 마켓’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학교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따라가던 중, 우리는 앨런 닙스 씨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왔으며,

그의 곁을 유일하게 지켜준 사람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피해자가 건넨 필름통을 챙겨

하교 후 함께 개기일식을 보기로 약속했지만, 피해자는 끝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앨런 닙스 씨는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근처의 윌로우 마켓으로 향해,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억이 복원된 후, 앨런 닙스 씨는

괴로운 기억을 마주한 슬픔보다, 소중한 사람의 기억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가 전학 가기 전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함께 있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꼭 범인을 밝혀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앨런 닙스 씨를 제외한 방향으로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1p로 돌아가, 재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수사관님께,

저희가 용의자 노아 스톤씨의 기억을 복원한 결과, 그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복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일자와 시간대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각, 노아 스톤 씨는 명백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사망 당시, 노아 스톤 씨는 자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날 오전 9시경, 노아 스톤 씨는 튜터로 일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러 분실한 지갑을 찾은 뒤,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후로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오후 3시 전까지 레드필드 대학교에 머물렀고,

하교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가방을 들고 급히 어딘가로 향하다 무언가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 스톤 씨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 피해자의 아버지를 뒤따랐고, 그가 돈가방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대학 생활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던

노아 스톤 씨는 결국 그 돈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계속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노아 스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 믿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기억을 되찾고 나니, 그건 스스로 만든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삶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따라, 노아 스톤씨를 제외한 방향으로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1p로 돌아가, 재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수사관님께,

저희가 용의자 무디 카터의 기억을 복원한 결과,

무디 카터 씨가 피해자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일자나 시간대를 알 수 없었을 텐데,

잠재 기억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해내시다니… 수사관님의 역량에 감탄했습니다.

복원된 기억 필름 속에는 무디 카터가 피해자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디 카터는 레드필드 스쿨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의 복원된 기억에 따르면, 근무 마지막 날, 가장 먼 거리에 사는 피해자를 일부러 납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날, 무디는 학교에서 스칼렛 룩 씨와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집까지 운행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평소 경로와 똑같이 레드필드 센트럴을 지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했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납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두기로 한 장소인 다리 밑에서 그는 돈을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 알 수 없는 약통과 비에 젖어 읽을 수 없는 종이 한 장만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이 없다”는 전화만 남긴 채 스쿨버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매일 복용해야 할 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무디는 끝내 약을 먹이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디는 시신을 스쿨버스의 안전벨트로 꽁꽁 묶은 후, 더스티 레이크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참고로, 복원된 기억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Selena Baily**이며, 그녀의 **주소 정보도 함께 복원**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수사관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사건 경과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기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후반 지침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현장에 이동해 주세요.

해당 문서에는 **현장 방문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대응 지침과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억수사팀 팀장 빅터 헤일(Victor Hale), ‘기억 도난 사건’ 해결 후 첫 인터뷰

“사건 해결의 핵심은 특별한 단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각들을 어떻게 다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수사팀 팀장 빅터 헤일의 말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억 도난 사건’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고, 기억수사팀의 노고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건 초기의 자잘한 정황 기록과 묻혀 있던 진술들을 다시 들여다본 일**이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인터뷰에서 기억수사팀은 \*\*“초기 단서들 역시 결코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억을 들여다본다는 건 결국, **지나간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보는 일입니다.**

그때는 답이 아니었던 단서도, 시간이 지나 돌아왔을 때는 열쇠가 될 수 있죠.”

기억수사팀은 현재 또 다른 사건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번에도 해답은 이미 주어진 단서들 안에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공백을 겪고 돌아온 메모리컴퍼니 회장 역시, 조용히 팀의 행보를 지켜보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 들어오고 나서, 큰 산 하나는 넘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게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단순해 보였던 단서들이 전혀 맞물리지 않고, 퍼즐 조각은 오히려 점점 더 흩어지고 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짚어보자.

일단, 생각을 좀 정리해봐야겠어.

1. 피해자 Selena와 기억삭제팀 Selena는 무슨 사이지?
2.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
3.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4. 기억삭제팀 Selena에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

**해당 QR코드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 후, 마지막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먼저 차례대로 진행한 뒤에 확인하셔야 전체 흐름에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 헬리아에요. 불과 몇 달전까진 셀레나였으니 이 이름이 더 편하시려나.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메모리 컴퍼니를 떠나기로 결심한 후,

저는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에만 시간을 한참 보냈답니다.

혼란스러움이 가시고 나니 문득 수사관님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봅니다.

처음 제 기억을 돌려주셨을 땐 혼란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진짜 제 자신이 누군지 헷갈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간을 살아왔던 저는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어도, 태양은 태양이잖아요.

저는 다시 태양처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셀레나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깝진 않아요.

어쨌든 그 시간들도 모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관님이 돌려주신 저의 시간을

더욱 저 자신을 위해 써볼 생각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위해 선택한 셀레나의 삶을,

아빠를 따라 꿈을 정한 셀레나의 삶을,

이제는 보내고 저는 헬리아의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제 기억을 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사관님 역시 언제나 자신을 위한 시간 속에 살고 계시기를.

-Helia

메모리 컴퍼니의 기억 수사관님께

얼마 전, 수사관님께서 집에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들었습니다.

메모리 컴퍼니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제 딸과 신원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 딸은 조사를 위해 기억을 제출했는데, 결국 착오였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하고 돌아가셨다 하더군요.

제 딸은 웃으며 신기한 해프닝이었다 말했지만,

사실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제 또 다른 딸, 셀레나라는 걸요.

셀레나에게, 아니, 헬리아에게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셨더군요.

아마 혼란스러울 헬리아를 위해 선택하신 일이겠지요.

제가 아내를 위해 선택한 이기적인 과거를 말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크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이를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는 이유는 언제나 부모를 위해서라고 하죠.

저와 제 아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탄생은 저희를 위한 거였죠.

그리고 그때의 제 선택 역시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에서야, 아주 늦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셀레나로 살아온 헬리아도,

그리고 이미 떠난 셀레나도,

지금의 선택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주 늦게나마 하게 됐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